

ASIATRIB 2002 International Conference & Symposium
JEJU ISLAND, KOREA

Current Status and Trends of Korean Oil Industry in the 21st Century

Hun Sik Kwak

**Korea Lubricating Oil Industrial Association
ISU Oil & Chemical Co., Ltd.
KOREA**

한국 윤활유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윤활유공업협회 회장 곽 훈식

1. 국내 윤활유사업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는 1950년대 초반 6.25사변 때 미군용으로 도입된 윤활유를 재정제 하여 일부사용 되어 왔으나 1950년대 말부터 기계산업의 발전에 따라 윤활유 수요가 촉진되어 윤활유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였으나 1960년대 초부터 폐 윤활유를 재생하는 시설을 시작으로 국산윤활유의 모습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지원하에 비로소 제대로 된 윤활유의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영국의 SHELL 및 BP사를 비롯하여 CALTEX, MOBIL, GULF, TOTAL, EXXON 등 세계적인 윤활유제조회사와의 기술제휴를 통한 국제수준의 각종 고급윤활유를 생산하게 되어 국내 모든 자동차 및 산업용기계에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고, 외국 선박의 국내 정박 시 동종 및 동급제품의 국산 윤활유로 대체 공급하는 등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현재 윤활유제조업체는 석유사업법에 따라 산업자원부에 신고를 거친 후 윤활유를 제조판매 하도록 되어 있으며 품질인증은 KS를 획득하고 기타제품은 석유사업법 제25조에 의거 석유품질검사소에 사전검사를 받아 최소한의 품질을 유지해야만 윤활유제품을 시장에 유통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기계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미치지 못해 외국으로부터 기술도입 또는 합작하여 품질을 고급화 및 국제화 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석유사업법에 따라 신고한 업체는 2002년 10월 현재 179개사가 있으나 실제 제품을 생산 및 공급중인 업체는 SK, LG, S-Oil 등 70여개사가 한국윤활유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윤활유공업협회 회원사는 19개사에 달하고 있습니다

2. 국내기술적 자립통한 기술축적필요

우리 윤활유업계 기술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외국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로 현재 국내업체와 기술제휴된 업체는 SHELL, CALTEX, MOBIL, ESSO, TOTALFINAELF, BP, CASTROL, KLUBER, FUHKS 등이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윤활유라는 제품은 평소 모든 기계장비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그리 크지 못하다가 최근에 와서 그 중요성이 차츰 높아져 이제는 기계제조사 및 사용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경영층에서도 그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계산업의 국제화, 국산화 추세와 함께 최첨단기술에 따른 고속, 고부하, 배기가스규제, 그리고 특수 환경에서의 각종 윤활유의 요구성능이 그 어느 때 보다 다양하게 요구되어 이에 맞는 윤활유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의 기계제조업은 세계 우수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 제품들 중 자동차 및 중장비와 같은 제품들은 기계제품의 성능 및 품질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맞는 윤활유의 개발 및 공급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세계수준의 윤활유가 생산 공급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윤활유업계는 이러한 국내 산업발전에 대한 대응은 물론 수출시장에 경쟁하기 위하여 국내 및 세계일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제품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자체 기술개발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장비 및 평가 인력 양성 등에 많은 투자를 함으로서 국가 장래를 위한 준비를 게을리 할 수 없는 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여기에 참석하신 업계, 학계 여러분의 연구노력 및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는 과거 기술제휴를 통한 해외 선진기업의 기술을 기반으로 학계와 산업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윤활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자체 연구능력강화는 물론 대학과 연구기관을 결연함으로써 보다 깊이 있고 실용적인 연구에 투자하며 또한 우리 한국윤활유공업협회도 대부분의 회원사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윤활학회를 지원함으로써 학계와 업계가 긴밀하게 협조해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학계, 산업계, 업계가 합심하여 진심으로 기술적인 유대를 더욱 가깝게 해야 될 것이며 장래에는 기술적인 자립을 통한 기술 축적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기술제휴에 따른 기술료의 지급도 절감될 수 있을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국산제품에 대한 신뢰도정착과 구매 협조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3. 윤활유 업계의 발전 방향

최근 들어 윤활유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가 국제화,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첨단 기술을 도입한 각종산업기계의 특성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출시장에서 부딪치는 지역적 특성 및 선진국의 규격 적용등에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 외국브랜드만 의존 할 것이 아니라 자체기술 개발로 점진적으로 국내 브랜드를 개발 및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각종 연구시설의 확보, 우수한 연구 인력양성 등 장기적으로 많은 투자가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윤활유 업계가 당면한 여러 과제 중에서 우리가 가장 시급히 해결 해야 할 과제는 무엇보다도 적정 이윤 창출이 가능한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인데, 전체 생산시설은 수요의 2배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일부업계의 과당경쟁, 유사제품생산, 신규업체의 성급한 시장 정착 욕심 등으로 윤활유 유통질서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각 업체에서나 운할유 업계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업계 스스로가 제품의 전문화와 제품의 고급화,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로 판매신장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원유가격인상 및 수입에 전량 의존하고 있는 첨가제 가격인상이 계속되고있는 상황과 폐 빈용기 회수비용 및 환경비용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출혈경쟁 및 덤핑판매 등을 계속 유지한다면 큰 어려움에 부닥칠 것으로 예상되오니 업계에서는 이익추구에서도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바쁘신중에도 여기에 참석하여 주신 학계, 업계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모쪼록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